

서평

저스틴 맥대니얼 저, “변덕스러운 산만함: 장식, 감정, 좀비 및 태국의 불교 연구”

(McDaniel, Justin Thomas, *Wayward
Distraction: Ornament, Emotion, Zombies and
the Study of Buddhism in Thailand*, Singapore:
NUS Press, 2021)

현시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sinae@sogang.ac.kr

I. 산만함이 보여준 다양성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종교학과의 저스틴 맥대니얼(Justin T. McDaniel) 교수가 해온 대륙부 동남아시아에서의 상좌부 불교의 영향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독창적이어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는 라오스, 태국, 팔리어, 산스크리트 문학, 예술과 건축, 필사본 연구 전문가로, 불교 연구, 물질 문화 및 종교 연구 관련 논문과 서평을 100편 이상 발표했다. 이전까지 필자가 접한 태국과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경전 연구에서부터 승가(Sangha)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스틴 맥대니얼 교수의 대중강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가 이야기하는 태

국 불교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흥미를 느껴 그의 저서를 찾아봤다. 그렇게 만나게 된 책이 “변덕스러운 산만함: 장식, 감정, 좀비 및 태국의 불교 연구 (Wayward Distraction: Ornament, Emotion, Zombies and the Study of Buddhism in Thailand)”이다.

이 서평에서는 맥대니얼 교수가 집중한 불교 경전과 현실 간의 간극, 그리고 불교의 보편성과 지역성의 충돌이라는 두 개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맥대니얼 교수가 인용한 “얇은 서술(thin description)”과 “겉 읽기(surface reading)”라는 방법론이 불교와 예술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논의하려 한다.

II. 경전과 현실

우연히 네팔에서 한 가정을 방문했던 그는 그 집 여주인과 7명의 자녀가 모두 승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고 가톨릭 학교에서 수학했던 그에게 사제, 수도사, 수녀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또한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태국에서는 승려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읽었던 불교 입문서, 경전, 승려 율법 그 어디에도 승려의 혼인이나 비구니의 혼인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승복을 입은 비구니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다고 한다 (79-80쪽).

이를 계기로 맥대니얼 교수는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읽히는 본생경(Jataka)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다고 이 사례를 소개한 "아름다운 불교 신자와 약혼자: 본생경에 서술된 결혼과 불교 (Beautifully Buddhist and Betrothed: Marriage and Buddhism as Described in the Jatakas)"라는 논문에서 말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본생경 정본(canonical)은 총 547개인데, 동남아시아에는 이에 더해 100개가 넘는 본생경 외경(apocryphal)이 있다. 대륙부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 공동체

내에서 널리 읽히는 “50개의 본생경”이라는 의미의 “판나사 자타카” 모음집이 이 외경의 대표적인 예이다(26, 82쪽). 네팔에서의 충격을 계기로 팔리어뿐만 아니라 지역 언어로 쓰인 본생경도 다시 읽은 맥대니얼은 이러한 경전들에 실린 이야기들이 오히려 “애착(attachment)의 고통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거나 결혼(그리고 자녀를 갖는 것)이 종종 일으키는 고통이 구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생산적이고 윤리적 교육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태국에서 쓰이거나 읽히는 불교 문학들은 “사랑, 결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신의 미덕을 명시적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한다(80-81쪽).

그렇다면 왜, 맥대니얼 자신은, 그리고 어쩌면 다수의 종교학자가 불교 승려는 결혼할 수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일까? 기존의 상좌부 불교 연구물들은 승가의 율법이나 교리에 근거해 금욕과 비혼이 이상적인 종교적, 윤리적 삶이라고 전제하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경전을 읽고 계율에 따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실천하는 종교적 삶은 승려와 비구니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 교리와 현실의 간극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지 못하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불교학은 현실과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불교라는 종교와 그 종교가 실천되는 현실 간의 갈등을 잘 드러낸 논문이 바로 “물질의 차례: 불교 부적 연구를 위한 태국 자료 소개(The Material Turn: An Introduction to Thai Sources for the Study of Buddhist Amulets)”이다. 이 논문은 태국 상좌부 불교 신자들 거의 모두가 갖고 있는 “부적(amulet)”에 대한 연구다. 불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불교 신자가 전 국민의 93퍼센트가 넘는다는 태국에서 부적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자그마한 부처나 승려상, 혹은 팔리어로 쓰인 부적을 펜던트로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니는데, 그 종류나 가격도 다양할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부적에 얽힌 수천 개의 이야기들이 잡지나 신문, 방송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부적 시장의 유명

세와 영향력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불교의 위기, 혹은 종교적 상업주의의 부상을 반영하는 증거라며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맥대니얼 교수는 이러한 부적 시장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불교의 물질 문화(material culture)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 주장한다. 부적 시장의 급격한 인기와 확대에 충격을 받은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받은 충격을 대중의 무지와 탐욕으로 전가하고 싶어 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129-130쪽). 맥대니얼은 불교 경전의 정본을 통해 드러난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고대사를 보면 “물체(object)”는 2,500년 전 시작한 불교 전파과정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였다고 한다. 건물이나 그림, 사리탑, 부적 등은 동남아시아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데 글자로 쓰인 교리보다 더 큰 영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성지순례를 가고, 부적을 모으고, 탑돌이를 하며 부처의 상 앞에서 절을 하겠는가(130쪽).

태국의 부적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50년대부터였다. 당시 잡지나 신문에서 도둑과 강도와 싸우던 경찰관이 부적의 힘으로 총상을 면했다는 영웅적 서사들이 유통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을 찾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근대화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한 범죄나 소형 무기 유통이 불러온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고, 동시에 불교 문화의 대중화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131-132쪽). 다시 말해서 불교의 물질 문화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역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태국인들이 실천하고 경험하는 종교 생활은 경전과 설교, 사찰에 한정되지 않고, 길거리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시장 좌판에 널려 있는 부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맥대니얼은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두 연구 논문에서 보여지듯 맥대니얼 교수가 지적하는 경전과 현실의 괴리 주 원인은 바로 “텍스트” 중심의 경전 연구다. 이는 “그림 구석에 있는 새: 태국 불교 장식 예술 연구에서의 불교 텍스트 사용의 문제점들(The Bird in the Corner of the Painting: Some Problems with the Use of Buddhist Texts to Study Buddhist Ornamental Art in Thailand)”이라는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보인다. 제

목에서도 드러나듯이 불교 경전 연구가 태국의 불교 장식 예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는 필연적 한계에 대해 맥대니얼은 “혈통, 종파,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사원, 수도원에는 장식적인 요소가 있지만, 불교 의식 활동이나 제도적 역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무시되어져 왔다”라고 주장한다(99쪽).

이러한 화려한 장식 중 맥대니얼은 “새”에 집중했다. 사찰 벽화, 불교 경전, 필사본 상자, 그리고 불교 의식에서 보이는 새의 종류를 연구하고, 왜 그 종이 장식품으로 선택되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류학을 전공한 학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고 자세한 설명이 이 논문에 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국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불교의 물질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기존의 경전 중심의 연구가, 특히 서양에서 이루어진 불교 연구자들이 “종교적”이지 않다고 간주하는 모든 요소가 “문화적”인 요소로 간주되면서 종교학과는 별개로 취급하였고, 이는 경전과 현실의 괴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맥대니얼 교수의 말을 빌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립된 학문 분야의 전문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선택하고 미학을 무시하는 습관을 개발하여 사원의 특정 부분을 “종교적”으로 보고 다른 부분을 “문화적”으로 보는 습관을 키웠다. 불교문화 연구는 미술사학자와 민족음악학자가 하는 것이라 여기는 한편, 종교학자들이 할 일은 텍스트와 “신념”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100쪽).

두 번째 문제는 경전을 통해 불교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실제 사원에서의 삶이다. 태국인들에게, 그리고 상좌부 불교 신자가 다수인 미얀마/버마, 라오스, 캄보디아인들에게 “사찰” 혹은 “절”은 말 그대로 삶의 일부다. 초등교육이 의무화되기 이전 대부분 어린이들은 절에서 글을 배웠고, 절 마당에서 뛰어놀았으며, 마을의 주요 행사가 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불교 경전이나 문학을 읽은 것은 아니다. 이들이 가진 불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대부분 설교를 듣고, 무용, 연극, 벽화 등을 보면서 체득되었다. 이들이 가진 종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수많은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이 만들어진 환경 안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being accumulated over

time)”되어 온 것이다(107쪽). 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알고 그래서 실천하는 종교적 삶은 글자로만 설명될 수 없다. 이러한 불교 신자들이 예술가가 되어 불교 사원의 벽화를 그리고, 장식할 때 쓴 “새”의 이미지는 그래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불교적” 새만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사원을 방문하는 신자들, 관광객들, 그리고 순례자들이 보자마자 그 아름다움에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익숙한 새를 그린 것이다(114쪽).

체득된 경험에 바탕을 둔 불교의 물질 문화는 자연스럽게 태국의, 그리고 더 나아가 대륙부 동남아시아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삶을 영위하는 데 일종의 양면적(ambivalent) 가치관을 갖게 하였다. 맥대니얼은 이러한 양면적 가치관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신이 마을에서 직접 경험한 사원에서] 본 주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들은 어린이가 사원에 대해 [그리고 불교적 삶에 대해] 비애착, 연민, 자제, 자기 부정, 무관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것의 아름다움, 풍부함, 경박함의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119쪽). 이 양면적 가치는 궁극적으로 맥대니얼 교수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불교의 보편성과 지역성 혹은 지역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III. 보편성과 지역성

“창조적 참여: 수안나우아루앙이 불교 문학에 한 기여(Creative Engagement: The Sujavanna Wua Luang and Its Contribution to Buddhist Literature)” 라는 논문에서 맥대니얼 교수는 타이어족 중 “타이큰(Thai Khun, 산주의 주도 껥퐁에서 쓰이는 타이어라는 의미에서 “껥퐁 타이” 라고도 불림)”이라는 언어로 쓰인 “수안나우아루앙” 본생경 외경 연구를 통해 타이큰 인들의 지역사와 문화를 알리는데 불교 경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야기한다. 앞서 언급했듯 동남아시아에는 본생경 정본 외에 지역 언어로 쓰인 다수의 본생경 외경이 존재한다.

타이큰 언어를 쓰는 이들은 대부분 타이족으로 현재 미얀마 동북부에 있는 산주에서부터 태국의 북부 치앙마이와 라오스, 그리고 중국 남부의 윈난성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수안나우아루앙 본생경은 이 타이큰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불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본생경 외에도 그 언어와 내용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판나사 자타카(50개의 본생경)”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모두 있는데, 공통으로 겹치는 내용은 실제로 15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본생경에 쓰인 팔리어도 지역마다 달라서 맥대니얼 교수는 이를 “팔리어 방언(local dialect of Pali)”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9쪽).

수안나우아루앙의 내용은 본생경 정본의 서사구조와 비슷하다. 부처님이 자신이 수자바나 보살(Bodhisatta Sujavana)로 살았던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황소의 제왕 우슈바라자(the King of the Bulls, Usubharaja)는 수자바나 보살을 만나기 위해 인간계로 내려왔는데, 강가에서 목욕하던 중 자신이 먹던 과일이 물에 빠지게 된다. 우슈바라자가 먹던 과일은 계곡을 따라 떠내려 갔고, 케마바티(Khemavati)라는 여인이 이 과일을 집어 먹은 뒤 임신하게 된다. 그렇게 태어난 케마바티의 딸 우마단티(Ummadanti)는 사실 인드라(Indra)의 33번째 천국에서의 부인으로, 미래 부처와 결혼한다는 조건으로 인간으로 태어난다. 자신의 아버지가 우슈바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우마단티는 황금 사슴의 안내를 받으며 아버지를 찾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아버지를 찾은 뒤 높은 기둥 위에 지어진 궁전에서 풍요롭게 살게 된다. 인드라는 수자바나를 우슈바라자가 있는 숲으로 인도했고, 수자바나는 우마단티를 발견하게 되지만, 그녀가 있는 궁전이 너무 높았다. 수자바나는 신에게 기도한 뒤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결국 그녀와 함께 7일 동안 궁전에서 지내게 된다. 이후 이들은 우마단티 어머니 케마바티를 찾아가고 수자바나의 부모님을 찾아본 뒤 결혼하고 아들과 딸 하나씩을 낳아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수자바나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고, 금욕자(renunciant)가 되기로 결심한다. 인드라는 이러한 수자바나를 시험하는 데 수자바나가 자신의 팔과 눈을 모두 내어주자 그

를 부처로 만든다. 우마단티도 수자바나를 따라 금욕자가 되고 결국 둘은 33번째 천국의 황금궁전에서 살게 된다(26-28쪽).

맥대니얼 교수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타이큰 인들이 좋아하는 로맨스 장르의 특성이 일부일처제에 대한 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수안나우아루앙에서 우마단티는 수자바나에게 정결(faithfulness)을 요구하는데 본생경 정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32쪽). 또 주목한 부분은 우마단티와 수자바나의 아들 수간다(Sugandha)와 딸 상카리(Sankhari)가 근친혼을 한다는 것이다. 맥대니얼은 남매간의 근친혼은 조로아스터 인들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34쪽). 세 번째로 주목한 점은 부처님이 승려들에게 이 이야기를 필사하고 설교하고 전파하는 이들은 풍요롭게 살고, 천국에 살고, 열반에 이르는 세 가지 기쁨(joy)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8쪽). 즉 부처 자신이 승려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알리면 세속적 물질의 풍요로움과 구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니삼사(anisamsa, 선행을 통해 얻는 공 merit)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이러한 교훈은 본생경 정본에서는 찾기 힘들지만, 동남아시아 불교 문학에서는 매우 흔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수안나우아루앙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징이라고 맥대니얼은 강조한다(34-35쪽).

수안나우아루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 본생경 외경이 가진 특징을 설명하면서 맥대니얼 교수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점은 결국 타이큰 인들이 본생경이 가진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중시하는 가치, 종교적 믿음과 행위에 현세적 정당성(temporal legitimacy)을 부여하려고 했다는 점이다(25, 37쪽). 맥대니얼의 말을 빌리자면 “팔리어 구절, 단어 및 문구를 사용하여 텍스트 전체에 걸쳐 고전적인 현세적 진정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지역적 혁신성을 부처의 언어(붓다바짜나, Buddhavacana)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 노력”이 바로 이 수안나우아루앙을 만들어 낸 동기이자 목적이라는 것이다(38쪽). 상좌부 불교를 믿는 종교 공동체, 특히 베트남을 제외한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 공동체를 일컫는 “사사나(sasana)” 공동체 안에서 타이큰 인들의 종교 공

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안나우아루앙을 쓴 타이큰 불교 신자들의 노력을 맥대니얼 교수는 “창조적 참여(creative engagement)”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창조적 참여가 의식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불교라는 세계적 종교가 보편성이 보듬어주지 못하는 지역적 현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안나우아루앙을 쓰는 작업은 타이큰 불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독특하고 정의될 수 있는 사람(unique and definable people)”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즉 타이큰 인들은 상좌부 불교 세계에 속하고,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에 속하지만, 동시에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이다(42-43쪽). 맥대니얼의 연구가 단순히 불교의 보편성이 지역적 특수성과 대립된다는 명제를 확인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기 힘든 이유는 바로 앞서 논의한 경전과 현실의 괴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견지하면서도 상좌부 불교와 같은 전 세계적 공동체와 교류하려는 타이큰인들의 창조적 참여가 불교문화, 사회, 정치의 다양성으로 귀결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서는 본생경 정보만이 아니라 수안나우아루앙과 같은 외경을 읽고, 사찰 벽화를 관찰하고, 부적을 파는 시장을 찾아가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체득한 지식을 맥대니얼 교수는 “얇은 서술”과 “걸 읽기” 방법론으로 풀어낸다.

IV. 얇은 서술과 걸 읽기

이 책의 서문에서 맥대니얼 교수는 지금까지 살펴본 수안나우아루앙 본생경, 태국의 부적 시장, 사찰 벽화에 있는 새들, 판나사 자타카 등을 보고 공부할 때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두꺼운 서술”과 “인지론적 가정(cognitivist assumption)”을 지양하고, 오히려 이들과 대립되는 “얇은 서술”과 “걸 읽기”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힌다(13쪽). 즉 불교문화를 기존의 사회과학적, 문화인류학적 관점이 아니라 심미학적, 미술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는 것이다. 이 책이 동남아시아 상좌부 불교와 불교 물질 문화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될 첫 번째 강점이다. 우리가 불교를 단일하고 전체적이고, 일관된 완전체로 보고, 불교 신자들을 그 전체 중 일부로 바라본다면, 불교 교리가 강조하는 애착과 사심을 버리는 가르침과 사찰을 화려하게 꾸민 다양한 장식품들은 서로 모순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맥대니얼 교수는 "나는 불교도를 이미 정의된 종교의 산물이나 대표가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의 등장인물로서 공부하고 싶었다"라고 말한다(15쪽). 인간 관찰자의 필요성을 제거하고 주어진 공간과 그 안의 대상이 서로를 위한 집합체로 존재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집중하고 본다면 인간 대 물질 혹은 객체의 양분법이 사라지고, 그 공간을 장식한 이름 없는 장인들의 이타적 헌신을 볼 수 있게 되며, 무아(egoless) 상태로 존재하는 물체(objects)들이 보이고, 이러한 아름다움과 감각적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 안에 기여하고 있는 부처의 상을 보게 되고, 그러한 부처를 공경하는 불자들이 보인다고 맥대니얼 교수는 말한다. 궁극적으로 사찰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벽화와 수많은 장식들은 그곳에 있는 부처의 상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왜 사찰을 방문하는 관광객, 혹은 후원자나 장인들이 절 밖에 앉아서 손을 벌린 가난한 이들이 아니라 불당 안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다(18-19쪽).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강점은 이 책에 실린 10년간의 연구 논문들을 통해 맥대니얼 교수가 종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종교에 대한 믿음이 실천되는 공간과 그 공간을 장식한 사람들의 행위, 그 결과물 자체에 의미를 두고 논의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불교 신자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큰 틀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목적과 방법을 끊임없이 재창조해내는 활동들이 무려 2,500년 전에 전파되기 시작한 불교를 지금까지 살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 책에 실린 연구들을 통해 맥대니얼은 태국의 불교 신자들의 혁신성과 표현력에 대한 자신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종교적 행위와 표현이 가진 다양

성을 기존의 범주화나 접근 방법으로 정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고 있다(14쪽).

필자는 그러한 노력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맥대니얼 교수가 지향하는 불교 연구가 종교가 만들어 낸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종교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세상을 보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역사가의 눈으로 본 맥대니얼 교수의 “변덕스러운 산만함”은 태국, 그리고 대륙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 단순히 미래에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현생에서의 기쁨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기에 기분 좋은 산만함이었다.